

제 6 회 유 럽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 - EU 1045

한글 성명: 누라나 압바소바

‘ 고 향 20 22 년 봄 ’

우 리 를 설 레 게 하 는 것 들 중 에 뭐 가
있 을 까? 좋 아 하 는 노 래, 보 면 볼 수 록 빠
지 게 된 한 국 드 라 마, 어 머 니 의 음 식
등 이 있 을 수 있 다. 그 런 데 나 의 마 음
은 남 보 다 다 른 다.

20 22 년 3 월 10 일 에 대 학 교 를 나 와
지 하 철 역^로 향 했 다. 기 말 고 사 까 끝 나 고 봄
학 기 가 시 작 해 서 그 동 안 쌓 인 스트 레 스
가 봄 바 람 으 로 풀 렸 다. 지 하 철 을 기 다 리
는 중 에 우 연 히 다 른 학 생 들 의 이 야 기
를 듣 게 되 었 다. 꽃 무 너 치 마 를 입 고
있 는 여 자 한 명 이 친 구 와 같 이 떠 날
여 행 에 대 해 말 하 고 있 었 다.

이 러 한 이 야 기 를 듣 고 나 서 나 는 마
지 막 으 로 언 제 여 행 을 했 는 지 생 각 하 게
되 었 다. 올 해 도 친 구 와 계 획 했 던 여 행 을
못 떠 날 까? 이 런 저 런 생 각 으 로 이 어 폰 을
꺼 고 노 래 를 듣 기 가 시 작 했 다. 로 이 컴 의
“ 봄 봄 봄 ” 노 래 가 들 렸 다. 코 로 나 생 기

제 6 회 유 럽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EU 1045

한글 성명: 누라나 압바소바

기 전에 친한 친구와 우리 고향으로
가려고 했었다.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
에게 "다음주 주말에 여행 가는 것이
어때?" 라고 물어봤다. 친구도 일상생활
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지 바로 동
의했다.

우리 둘이 버스를 내리자마자 고향의
모습을 둘러보았다. 나는 5년 만에 고향
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셨다. 차를
타고 집을 향해 가는 길 내내 고향의
모습을 구경했다. 고향의 곳곳이 돌담길
로 이어져 도로 양옆에 도랑이 있다.
길옆에 핀 꽃들이 길과 잘 어울려 너
무나 아름답게 보였다. 친구와 차 안에
고향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
쾌해졌다. 자동차 창문을 내려 길을 이
어진 옛집을 보면서 비가 온 뒤에 난
훈 냄새를 맡았다. 그 탕씨에 훈 냄새
는 어린 시절의 언니와 같이 "바미예"
라는 과자를 먹기 위해 동네를 둘러봤

제 6 회 유 럽 성균 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-EU1045

한글 성명: 누라나 압바소바

먼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. 비가 오는
 날에는 고향 사람들이 산의 물이 더럽
 기 때문에 가게에서 물 사서 썼었다..
 그래서 물 병이 집집마다 쌓여 있었다.
 비가 그친 다음에 언니와 집을 나가
 비어 있는 물 병을 주고 가게 주인에
 게 주었다. 가게 주인이 언니와 저에게
 그걸 때마다 바미예를 주셨다.
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. 마당에 와 보
 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또 떠올랐다.
 방학 때마다 고향에서 놀았던 친구들이
 하나씩 하나씩 생각났다..
 3월에 친구와 같이 떠난 여행 덕분에
 에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마음을
 설레게 했다.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만
 한 나는 여행이 나를 얼마나 설레게
 만들었는지 잊고 있었다. 언니든, 친척이
 든,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
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..
 아직 한국에 단 한번도 가 본 적이

제 6 회 유 럽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2 - EU1046

한글 성명: 누라나 압바소바

없 는 나 는 한 국 에 여 행 가 게 되 면 무
엇 을 할 건 지 , 누 구 와 어 디 로 갈 건 지
계 획 하 고 있 다 . 나 의 봄 은 한 국 인 데 김
영 랑 의 " 모 란 이 피 기 까 외 는 " 라는 시 에
서 나 온 것 처 럼 나 도 모 란 이 고 나 의
마 음 에 봄 이 올 때 까 지 기 다 리 고 있 을
것 이 다 .